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메아리’ 프로그램 출발 알림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온라인, 거리, 미술관 모두를 관통하는 위드 코로나시대 온택트 네트워크형 전시 행사로 진열 정비
- 미술관 안과 밖,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친 전방위적 네트워크에 비엔날레 작품들이 퍼지는 모습에 착안한 ‘메아리’ 프로그램 편성
- 비엔날레 웹사이트 오픈과 함께 ‘온라인 채널’을 편성하고 ‘메아리’의 첫 시작 알림. 비엔날레 웹사이트와 SNS에서 장영혜중공업, 림 기용, 요한나 빌링의 신작 공개
- ‘메아리’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시 각지의 카페, 서점, 음식점, 클럽, 거리의 미디어캔버스 등이 비엔날레 유통처로 참여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품을 무료 관람하는 ‘유통망’ 프로그램으로 8월 공개 예정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1년 연기된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온라인, 거리, 미술관 모두에서 펼쳐지는 위드 코로나시대 온택트 네트워크형 비엔날레로 정비하고 개막의 시작으로 ‘메아리’ 프로그램 1탄 ‘온라인 채널’ 오픈을 발표한다.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라는 제목으로 예술감독 융 마(Yung Ma)와 총 41명/팀 작가가 참여하며, 오늘날 판타지물과 히어로물과 같은 대중 미디어에서 발견되는 현실도피적 경향을 현실 극복의 원동력과 변화의 상상력으로 역전환하는 예술적 시도들에 주목한다.
  -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대중문화의 유통 모습에 착안하여 온라인, 거리, 미술관의 네트워크 상에서 비엔날레가 메아리처럼 펼쳐지는 형태를 구상하였다.
  
- ‘메아리’는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요 개념어이자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펼쳐질 공공 프로그램의 총괄 제목이다.
  - 온라인 채널 상영, 미디어캔버스 상영, 서울시내 독립 미술공간과의 협업, 퍼포먼스, 강연, 워크숍, 전시 투어 등의 다층적인 메아리 프로그램들이 서울시 전역을 매개하고 현대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제시한다.
  - 이번 5월의 메아리 프로그램 1탄 온라인 채널 오픈을 시작으로 9월 8일(수)부터 11월 21일(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의 오프라인 전시와 병행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콘텐츠

츠들의 메아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 메아리의 작품들은 각 공간(매체, 장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작 혹은 재제작된 작품들로 메아리 단독 공개 콘텐츠들이다.

□ ‘메아리’의 첫 시작은 ‘온라인 채널’ 오픈이다. 지난해 12월의 온라인 팝업 피처링에 이어 공식 디자인을 완비한 비엔날레 웹사이트 (mediacityseoul.kr)와 SNS에서 장영혜중공업, 림 기웅, 요한나 빌링의 신작을 단독 공개한다.

- 인터넷 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장영혜중공업은 영상 작업 〈삼성의 뜻은 재탄생〉(2021)을 소개한다. 총 일곱 편으로 구성된 영상 시리즈로, 오는 5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 편씩 공개된다.
- 대만의 뮤지션이자 작곡가인 림 기웅(Lim Giong, 林強)은 대만의 전통 음계와 전자 음향을 결합한 신곡 〈오행〉(2021)의 5곡을 7월 12일부터 5일간 매일 한 곡씩 소개한다.
- 요한나 빌링(Johanna Billing)은 하나의 곡을 다양한 뮤지션들이 새롭게 해석하여 부르는 작가의 장수 프로젝트 〈넌 날 아직 사랑하지 않으니까(You Don't Love Me Yet)〉(2003-)를 선보인다.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서는 열 팀의 국내 뮤지션들과 협업하여 각인각색의 매력이 드러나는 커버곡 열 편을 7월 2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두 곡씩 발표한다.

□ 온라인 채널에서는 인터넷상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을 다운로드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 8월부터 공개되는 온라인 채널의 작품들은 프로젝트 웹사이트

트, 구독 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형태를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7월 중 공개된다.

□ ‘메아리’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유통망’은 시민의 생활권 내에 있는 공공 및 민간 거점에서도 현대미술과 조우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각지의 문화공간들에 비엔날레 참여 작품들을 유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8월에 전격 공개된다.

○ 우리 삶 곳곳에 편재하는 대중 미디어의 특성을 참조하여 카페, 서점, 음식점, 클럽 등 예상치 못한 일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현대미술과의 우연한 만남을 제안하며 그로써 발생할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에 주목한다.

○ 나아가 ‘유통망’에서는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생생한 현장과 단독 작가 인터뷰 등을 실은 매거진 「노선도」를 무료로 배포하여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비엔날레에 쉽게 다가서는 길잡이로서 제공한다.

□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술관과 도시 전역을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매개하며 트랜스미디어의 현상을 일구는 것이 온택트 시대 비엔날레의 새로운 모델이다”라며 “이번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메아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 전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미술관으로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웅 마(Yung Ma) 예술감독은 “지난 일 년 동안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봉쇄령으로 자기 집에 고립된 채 미시적인 도피의

형태를 경험했다. 또 한편으로는 인종차별과 사회 부정의에 맞서기 위해 많은 이들이 결집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에서 도피주의는 우리가 세계와 만나고, 또 우리를 세계와 연결해주는 비평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온라인, 메아리, 전시 등 비엔날레의 내용과 형식 전반에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웹사이트([mediacityseoul.kr](http://mediacityseoul.kr))와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sema.seoul.go.kr](http://sema.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요  
2. 온라인 채널 개요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요

- 제 목: [국문]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영문]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One Escape at a Time*
- 기 간: 2021년 9월 8일 - 11월 21일
- 예술감독: 융 마(Yung Ma, 前 파리 폰피두센터 큐레이터)
- 참 여 자: [총 41명/팀] 강상우, 고등어, 김민, 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 (에이미 램, 존 맥컬리)[Life of a Craphead (Amy Lam and John McCurley)], 류한솔, 리랴오(Li Liao), 리우추앙(Liu Chuang), 리처드 벨(Richard Bell), 림기웅(Lim Giong), 무니라 알 카디리(Monira Al Qadiri), 미네르바 쿠에바스(Minerva Cuevas), 바니 아비디(Bani Abidi), 브리스 델스페제(Brice Dellsperger), 사라 라이(Sarah Lai), 샤론 헤이즈(Sharon Hayes), 쉬쩌위(Hsu Che-Yu), 씨씨 우(Cici Wu), 아마츄어 증폭기, 아이사 흑슨(Eisa Jocson), 야마시로 치카코(Chikako Yamashiro), 올리버 라릭(Oliver Laric), 왕하이양(Wang Haiyang), 요한나 빌링(Johanna Billing), 유리 패티슨(Yuri Pattison), 장영혜중공업, 장윤한(Chang Yun-Han), 정금형, 취미가×워크스, 치호이(Chihoi), 탈라 마다니(Tala Madani), 토비아스 칠로니(Tobias Zielony), 폴 파이퍼(Paul Pfeiffer),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Pauline Boudry / Renate Lorenz), 필비 타칼라(Pilvi Takala), 하오징반(Hao Jingban), 합정지구, 헨리케 나우만(Henrike Naumann), 흥진훤, DIS, C-U-T(닐스 앙스트림, 발렌틴 말름글렌, 빅토르 포겔스트림, 아론 포겔스트림, 카론 닐센, 카이우 마르케스 드 올리베이라, 밍 웅), ONEROOM
- 행사소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하는 국제 비엔날레로, 미술, 미디어, 도시 사이의 연결 고리를 새롭게 모색한다. 첫 외국인 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오늘날 대중미디어에 나타나는 도피주의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한다.
- 주 최: 서울시립미술관
- 후 원
  - 서울시립미술관 기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에르메스 코리아
  - 비엔날레 파트너: RC 재단

## 온라인 채널(Online Channel) 개요

■ 내용: 비엔날레 참여작가의 작품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는 비엔날레의 통합 플랫폼

■ 기간: 2021년 5월 27일 오픈

■ 웹사이트 주소: mediacityseoul.kr

### ■ 대표 작가 이력

작가	작품 내용
장영혜중공업 1999년 결성 / 서울에서 활동	장영혜중공업은 장영혜와 마크 보주의 인터넷 아트 프로젝트로, 1999년에 결성되었다. 재즈 사운드트랙에 맞추어 문자가 숨가쁘게 움직이는 형식을 주로 취하는 이 듀오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작업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코믹하면서도 통쾌하게 비판하는 한편, 국제 미술 제도와 세계화된 사회의 모순과 위선을 지적한다. 파리 퐁피두 센터, 브리즈번 퀸즈랜드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전시했다. 록펠러 재단의 2012-13년 벨라지오 크리에이티브 아트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림 기용(Lim Giong) 1964년 타이중 출생 / 타이중 거주 및 활동	림기용은 실험음악가이자 영화 음악 작곡가로 프로듀싱부터 라이브 공연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팝 락 데뷔 앨범 〈앞으로 나아가자(向前走)〉를 발표하며 대만의 민주화 과정과 동시에 벌어진 새 대만 가요 운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 영화음악감독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허우샤오시엔의 〈밀레니엄 맘보〉(2001)와 지아장커의 〈스틸 라이프〉(2006), 비간의 〈지구 최후의 밤〉(2018) 등에 참여했다. 2015년 〈자객 섭은낭〉(2015)으로 칸 영화제 사운드트랙상을 수상했다.
요한나 빌링(Johanna Billing) 1973년 연세핑 출생 / 스톡홀름 거주 및 활동	요한나 빌링은 스톡홀름에 거주하고 활동하며, 주로 음악가, 무용수, 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협업을 라이브 이벤트나 영상으로 만든다. 음악, 움직임, 리듬, 그리고 반복의 개념을 활용하는 빌링의 작업은 개인과 집단 행동의 관계를 탐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문화적 현상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트론헤임 미술관(2017), 제노바 빌라 크로체 미술관(2016), 모던 아트 옥스퍼드(2010)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제10회 노르딕 컨템포러리 비엔날레(2019), 제4회 오슬랜드트리엔날레 (2010), 도큐멘타 12(2007) 등의 국제적인 전시에서 작업을 선보였다.

■ 웹사이트 디자이너: 비엔날레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웹사이트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워크숍스(Wkshps)와 파크랭거(Park-Langer)가 맡았다. 워크숍스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휘트니 미술관 등 굵직한 미술 기관과의 협업을 15년 넘게 이어왔다.

※ 별첨 이미지

번호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크레딧
1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디자인 아이덴티티
2	<p>너는 스마트폰의 재활용 플라스틱 부품으로 만들어진 나일론이야.</p> <p>YOU'RE NYLON -- MADE FROM THE RECYCLED PLASTIC PARTS OF SMARTPHONES.</p>	장영혜중공업, <삼성의 뜻은 재탄생, 제3화: 때수건>, 2021. 작가 제공.
3		리랴오, <Unaware 20200205>, 2020. 작가 제공.
4		작가 C-U-T(닐스 앙스트림, 발렌틴 말름글렌, 빅토르 포겔스트림, 아론 포겔스트림, 카론 닐센, 카이우 마르케스 드 올리베이라, 밍 윈)의 프로필 사진. 작가 제공. 사진: 테레스 외르발.
5		고등어, <공동고백>, 2021. 작가 제공.
6		필비 타칼라, <마음이 원한다면>, 2020. 작가 제공.



**기본 정보**

- 주 최 : 서울시립미술관
- 담 당 자 : 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진(nakwonjin@seoul.go.kr / 02-2124-8975)  
큐레이터 이지원 (press@mediacityseoul.kr / 02-2124-8976)
- 홍보문의 : 주무관 박창현(ch1015@seoul.go.kr / 02-2124-8917)

**관련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http://sema.webhard.co.kr>)
- 로그인(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폴더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메아리’ 프로그램 출발 알림] 폴더)